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발전을 위한 과제 모색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조성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Future Tasks for Development of Korean Art Archives
: Focused o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Art Archives, Seoul Museum of Art”

조은성(Jo, Eun Seong)*

1. 서론
2. 아트아카이브 논의
 - 1) 아트아카이브의 정의와 범주
 - 2) 사례분석
3.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구축 현황
 - 1) 조직·기능과 디지털아카이브
 - 2) 수집제도의 한계와 아카이브 설계
 - 3) 조성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4.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발전과제
 - 1)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조성의 한계
 - 2) 국내 아트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5. 결론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기록연구사(eunseong@seoul.go.kr).

■ 투고일: 2022년 12월 28일 ■ 최초심사일: 2023년 01월 02일 ■ 최종확정일: 2023년 01월 11일.

■ 기록학연구 75, 213-248, 2023, <https://doi.org/10.20923/kjas.2023.75.213>

〈초록〉

기록학과 미술계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트아카이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론적 논의에서 그치고 있을 뿐이며 실제 아트아카이브의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제시된 연구는 없다.

이 글에서 필자는 실제 아트아카이브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공유하고, 국내 아트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기반과 그것을 조성하는 실무자에게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발제 과제를 연구한 것이다. 먼저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아트아카이브의 개념적 논의를 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아트아카이브 사례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사례는 조직/기능, 디지털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그 뒤 수집과 관련된 제도와 그 제약 그리고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아카이브의 체계를 설계한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조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가 가진 특징과 시사점, 한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내 아트아카이브가 발전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한다.

주제어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art archives, 아트아카이브, 미술아카이브, 수집정책, ART ARCHIVES, SEOUL MUSEUM OF ART(SeMAA)

〈Abstract〉

Since early 2000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art archives. Despite of the interest, there are only studies which did not suggest cases that the system of art archives was constructed, but had just theoretical discussions. This article reports the organizations & functions, rooms & locations, materials, acquisition institution and its limitations of "The Art Archives, Seoul Museum of Art" and describes in the archival

aspect,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system of “The Art Archives, Seoul Museum of Art” had been constructed. This study reviews the implications of the archives which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and the tasks to develop the art archives in Korea.

**Keywords : THE Art Archives, Seoul Museum of Art, Acquisition Policy,
ART ARCHIVES, SEOUL MUSEUM OF ART(SeMA AA)**

1. 서론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2006년 전면 개정까지 기록학계는 공공 영역에서 그 연구와 실무, 규모를 양적으로 성장시켜왔다. 이러한 공공 영역 내 제도적 밑바탕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등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그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학계는 매년 혹은 정권 변화에 따라 혁신의 혁신을 외치는 공공 영역의 기록관리 이외 민간 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아카이브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동시대 한국 사회는 각기 각층에서 아카이브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학계의 연구와 논의는 그만큼 적극적이지도 다양하지도 못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미술계의 아카이브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발전과제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그 간 미술계와 미술현장에서 아카이브에 관한 논의와 전시가 200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기록학계에서 그것은 주요 담론이 되지 못하였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가 개관하면서 미술계뿐만 아니라 기록학계의 아트아카이브에 관한 논의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에 아트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크게 공간으로서 아트아카이브 구축과 운영, 기록관리 프로세스 중 수집 및 관리,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와 기술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아트아카이브의 구축 및 그 현황과 관련된 연구는 신나라(2016), 김달진(2012), 김인혜(2012), 류한승(2012), 정혜린(2008), 정공주(2006), 김기현(2000) 등이 있다. 이 중 미술계에서 김달진(2012)은 아트아카이브의 다양한 기관(22개)의 충실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각 기관마다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아트아카이브를 정책적으로 지원(소프트웨어 등)을 주장하였다. 김기현(2000)은 초기에 개괄적이지만, 아트아카이브의 국내 도입을 위해 조직형태, 재원조달 방향 등을 고민하였다. 한편 정공주(2006)는 기록학계에서 초창기 아트아카이브의 개념과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아트아카이브 수집·관리·보존 등 프로세스와 관련된 연구는 김아름(2018), 이세영(2017), 장지영(2017), 정공주·박주석(2014), 설문원(2011), 김민수(2011) 등의 연구가 있다. 특히 설문원(2011)은 연구 당시만 하더라도 예술 부문 기록관리 사례를 보았을 때 아카이브의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비판하면서, 예술기록관리에서도 출처와 원질서를 강조하고 나아가 예술창작과정의 기록을 수집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정공주·박주석(2014)은 수집전략을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분류의 목적) 주장하면서, 생애시기구분(성장기, 교육기, 작가활동시기, 사후시기)과 작가의 활동(작품활동, 사적활동, 공적활동)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기록물을 도출해내었다.

아트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와 기술에 관한 연구는 박나라보라(2019), 김민지(2017), 이호신(2016), 이지은(2015), 김경연(2012), 황진현(2011) 등이 있다. 이호신(2016)은 정리와 기술이 기록이 담고 있는 내재된 맥락을 보존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연예술기록에서의 중요한

맥락으로 작품공연기획, 공연기획-개별공연, 공연-생산자, 기록-기록/공연-기록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황진현(2011)은 기록관리의 관점으로 기존의 시각예술분야의 메타데이터를 변경·추가하여 6개의 영역과 총 72개의 요소로 구성된 시각예술기록 메타데이터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관련 연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록학과 미술계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트아카이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서 그치고 있을 뿐이며, 실제 아트아카이브의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제시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글에서 필자는 실제 아트아카이브를 구축한 경험¹⁾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공유하고, 국내 아트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기반과 그것을 조성하는 실무자에게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²⁾

이 글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발제 과제를 연구한 것이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미술계와 기록학계 전문가 그룹의 도움으로 조성되었고, 2장의 사례기관과 다르게 별도의 공간과 조직을 통해 아트아카이브를 수집-관리-서비스하는 미술관이라는 점에서 사례로 선정하였다.

먼저 2장은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아트아카이브의 개념적 논의를 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아트아카이브 사례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사례는 조직/기능, 디지털아카이브, 수집제도와 그 제약에 대해 전개하고,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아카이브의 체계를 설계한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조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가 가진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1) 필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서 아트아카이브에 대한 수집정책의 수립, 관리·보존,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이 글에서 '조성'은 공간(건축 등)과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한계와 국내 아트아카이브가 발전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한다.

2. 아트아카이브 논의

1) 아트아카이브의 정의와 범주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국내에서 아트아카이브의 개념적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록학계와 미술계는 art archives를 미술기록, 예술기록, 시각예술기록, 미술아카이브, 아트아카이브, 예술아카이브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카이브 용어 자체가 자료 혹은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칭하듯이 중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술기록은 “창작에서 감상에 이르기까지 예술 활동과정에서 생산·축적된 기록 전체”(설문원, 2011, 219)로 지칭되고 있으며, 시각예술기록은 “작가의 창작활동과 개인의 삶을 반영하고, 작가가 창작한 시각예술작품의 맥락과 가치를 증거해 줄 수 있으며, 시각예술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업무과정과 시각예술작품의 활용과정에서 생산된 기록”(황진현, 2011, 12)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술기록물은 “우리 주변의 미술과 관련된 각종 사건과 사실, 미술인과 그 주변 인물들에 관해 기록한 정보들”(정공주, 2006, 11)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아트아카이브이란 용어에 대해 기록학계는 “미술작품을 보충하여 미술의 역사를 엮어 나갈 정보와 증빙가치를 갖는 원본기록물을 보존하는 기관”(정공주, 2006, 11)으로 말한다. 한편 미술계에서는 미술관련기관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미술과 관련된 가치 있는 기록자료를 수

집, 평가, 분류, 보존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기관”을 지칭(김기현, 2000, 11)하기도 한다. 또한 “다원화된 현대 사회를 증명하는 하나의 아카이브 유형으로서 예술 활동 과정 중에 생성된 기록 중 영구히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박상애, 2014)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에서 아트아카이브³⁾는 (시각)예술의 활동과정에서 작가 등 생산자가 생산 및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시각)예술분야의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⁴⁾

현재 국내에서 아트아카이브의 개념적 범주는 거칠게 논의하면 크게 두 가지로 ‘작품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작품을 제외할 것인가’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 김달진(2008, 13)은 “1차적인 자료는 넓은 의미에서 작품 그 자체”라고 주장하였고, 이호신(2008, 50)은 “예술 활동의 가장 궁극적인 결과물로 생산되는 자료는 예술 작품 그 자체”라고 제시하였다. 후자의 경우 김철효(2007, 23)는 “시각예술에 관련된 모든 자료, 모든 기록과 모든 정보를 말할 것이지만 시각예술의 제일 중요한 자료인 예술작품은 제외된다.”라고 말하였다. 이 중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후자의 관점으로 수집하고 아카이브 체계를 구축하였다.⁵⁾

3) 이 글에서 아트아카이브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예술아카이브’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미술아카이브’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기관명과 혼동을 피하고자 제외하였다.

4)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대표적인 미술관들은 아트아카이브를 수집기록과 미술관(기관)기록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미술사를 도큐멘테이션하는 미술기록과 미술관 내의 조직에서 생산되는 기관기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정혜린, 김익한, 2009, 194).

5) 앞선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술현장에서 작품과 아카이브가 엄밀히 구분되는 이유는 소장자(처)에서 즉 작품과 아카이브를 생산하고, 모았던 작가(생산자)들이 생각하는 작품-아카이브의 괴리감 때문이다. 작품과 아카이브가 동일한 관점에서 생산 및 수집되지 않았고, 그 위계가 분명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또한 작품과 아카이브를 소비·유통하는 단체들(국공립 미술관, 사립미술관, 갤러리 등)에서도 아카이브가 작품을 포섭하는 범주로 이해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2) 사례분석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이하 “시립미술아카이브”)의 구축사례를 살펴 보기 앞서서 국내의 사례는 많지 않다.⁶⁾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아트 아카이브 구축을 진행해왔으나⁷⁾, 국내는 최근까지도 미술관 내 자료실이라는 이름으로 도서와 포트폴리오 등을 보존하고 있는 공간들이 대부분이다. 국내에서 아트아카이브를 수집·관리·보존하는 기능을 갖춘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백남준아트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다시 말해 3개의 기관이 국공립 미술관 내에서 단순 자료실의 역할이 아니라 아카이브의 기능을 운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 사례로 선정하였다.

먼저 자료의 구성·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연구센터는 학예연구실 산하 소장품자료관리과 소속이다. 미술연구센터는 소장자료를 수집기록과 미술관기록으로 구분하고 있고, 192,710 점을 미술자료로 수집관리하고 있다.⁸⁾ 국립아시아문화전당(라이브러리파크)은 연구조사과에서 아카이브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자료는 전문주제자료, 기증자료, ACC자료 전문도서로 구분한다. 전체 규모는 디지털아이템 44,823(건), 실물아이템 23,469(건)이다.⁹⁾ 백남준아트센터는 경기문화재단의 소속기관으로 학예운영실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자료는 기관기록, 수집기록(백남준 아카이브, 비디오 아카이브, 스튜디오 아카이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¹⁰⁾

6) 미술계 내 아카이브 구축 현황에 대한 조사로는 앞서 언급했던 김달진(2012)이 있다. 김달진의 연구에서 제시된 아카이브는 거의 대부분 아카이브의 기능(수집-관리-보존-서비스)을 갖추지 못하고 도서자료실 중 일부 아카이브를 보관하고 있다.

7) 대표적인 공간으로 Tate(<https://www.tate.org.uk/>), Getty(<https://www.getty.edu/research/institute/>), Asia Art Archive(<https://aaa.org.hk/en>) 등이 있다.

8) 미술연구센터는 크게 미술도서실과 미술아카이브로 구분되어 있으며, 미술아카이브는 수집기록과 미술관기록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국립현대미술관, 2021).

9) <http://archive.acc.go.kr/> (2022.7.17. 확인) 수량단위를 별도로 표기하고 있지 않다.

〈표 1〉 국내 아트아카이브 구축·운영 사례 비교

기관명 구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ACC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공간	· 미술도서실 · 미술아카이브	라이브러리파크	연구도서관
조직	학예연구실 소장품관리과	연구조사과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운영실
주요 업무 (기능)	· 미술자료 수집보존 · 미술연구센터운영 · 디지털정보실 운영	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 자료,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운영·교육에 관한 사 항	백남준, 아트센터의 자료의 수집, 보관, 활용
소장자료 규모	· 수집기록: 190,000여 점 · 미술관기록: 130,000여 점	· 디지털아이템: 44,823 · 실물아이템: 23,469 (단위 표기 안함)	비디오아카이브: 2,285점 (전체 규모 미제공)
소장자료 구분	· 수집기록(외부수집) · 미술관기록(내부생산)	· 전문주제컬렉션 · 기증컬렉션 · 기관정책&운영	· 수집기록(외부수집) · 기관기록(내부생산)
관련 규정	미술자료 관리 운영규정	아카이브 관리 규정	공개된 자료 없음
아카이브 매뉴얼·지침	· 포장 및 라벨링 지침 · 분류, 정리, 기술지침 · 디지털화 지침 ※ 현재 공개되지 않음	공개된 자료 없음	공개된 자료 없음
디지털아카이브	www.mmca.go.kr 홈페이지 내 일부 메뉴	archive.acc.go.kr 일부 메뉴	njp.ggcf.kr 일부 메뉴

※출처 : 각 기관의 웹사이트와 연보, 규정집을 재구성.

주요 업무(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미술연구센터는 ▲ 미술자료 수집·보존, ▲ 미술연구센터 운영(미술도서실, 미술아카이브), ▲ 디지털정보실(디지털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문화 아카이브는 ▲ 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자료, 아카이브 기획·운영·교육으로만 업무가 한정되어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 백남준, 아트센터의 수집, 보관, 활용이란 개괄적 내용만 제시하고 있다.

규정과 매뉴얼·지침과 관련해서 미술연구센터는 「국립현대미술관

10) <https://njp.ggcf.kr/%ec%95%84%ec%b9%b4%ec%9d%b4%eb%b8%8c/> 참조(2022.7.17. 확인) 구체적인 자료 현황을 자료 구분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술자료 관리 규정」에서 자료의 수집, 등록과 보존, 열람, 대출,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아시아문화 아카이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규정에는 자료 수집, 관리, 이용,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공개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디지털아카이브 측면에서 보았을 때 3개의 기관은 독립된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지 않는다. 각 기관의 대표 웹사이트에서 일부 기능으로 대신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연구’의 하위 메뉴인 ‘도서와 아카이브’의 ‘아카이브컬렉션’에서 아카이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백남준아트센터는 대표 웹사이트 내에서 각각 ‘ACC 아카이브’와 ‘소장품’ 하위 메뉴인 ‘아카이브’에서 관련 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다.

앞서 사례로 언급한 3개의 기관은 국내에서 아트아카이브의 조성과 구축,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나 그 한계는 명확하다. 먼저 3개의 기관은 단순히 아카이브를 수집·관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아카이브를 활용한 서비스는 부족하다. 또한 2개의 기관은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정들은 기록관리 프로세스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사례분석 기관은 어떤 비전과 목표 수집전략을 수립하는지, 어떤 방법론에 입각하여 아카이브를 관리, 공개, 보존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3개의 기관은 별도의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례분석기관은 모두 해당 기관 웹사이트의 일부 기능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기능들은 아카이브를 검색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각 기관의 대표 웹사이트는 온라인으로 아카이브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시립미술아카이브의 구축 현황을 앞서 사례분석 대상 기관을 분석하였던 기준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 기준은 ▲ 주요 업

무(기능) ▲ 아카이브의 설계(규정과 매뉴얼 수립) ▲ 디지털아카이브이다.

3.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구축 현황

1) 조직·기능과 디지털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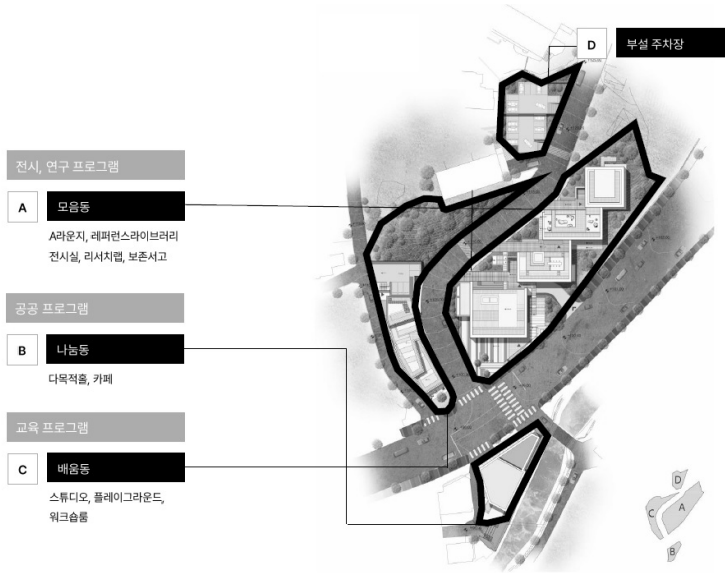
시립미술아카이브는 2014년부터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사업으로 추진되어 2023년 개관할 예정이다. 특히 시립미술아카이브는 서울특별시 문화정책의 일환인 「박물관·미술관 도시 서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¹¹⁾ 그리고 상기 언급했던 기관보다 후발주자지만 국내 최초로 아트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보존·서비스하는 특화된 미술관이다.

〈표 1〉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립미술아카이브의 건축 현황은 공간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7,300㎡(연면적 5,590㎡) 규모 부지에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음동은 아트아카이브의 수집·관리·보존·활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배움동은 다양한 주체(작가, 시민, 학생 등)가 교류하는 오픈형 교육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나눔동은 공연과 영상 상영, 대중강연과 같은 프로그램을 위한 다목적홀의 역할을 한다. 이 중 아카이브와 관련된 공간은 모음동에 있는 보존서고와 자료준비실, 리서치랩이다. 보존서고(488㎡)는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별로 형태에 따라 구분되어 『공공기록물법』에 의한 보존환경(온습도)을 유지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다. 자

11) 백남준기념관(2017), 돈의문역사관(2018), 이음피움 봉제역사관(2018), 서울생활사 박물관(2019), 서울우리소리박물관(2019), 서울공예박물관(2021)에 이은 7번째로 개관하는 기관이다.

료준비실(36㎡)은 아카이브가 물리적으로 정리되기 전에 목록 작업 및 디지털화를 하는 곳이며, 리서치랩(161㎡)은 아카이브 열람실로 사전에 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림 1〉 시립미술아카이브 공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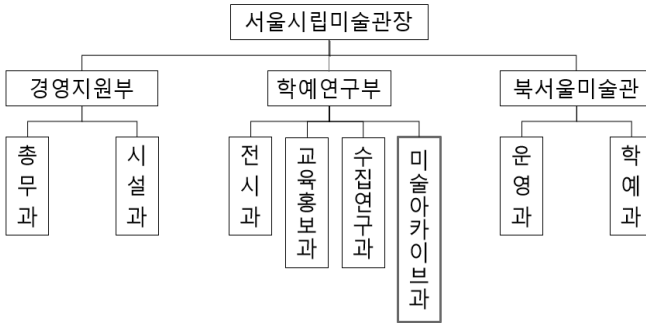


※출처 : 디지털미술아카이브 공간소개(semaaa.seoul.go.kr).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미술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실천들이 만들어 낸 기록과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연구하는” 아카이브와 연구 중심의 미술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¹²⁾

12) <https://semaaa.seoul.go.kr/front/info/sub0601.jsp> (2022.7.27. 확인)

〈그림 2〉 서울시립미술관 조직도



※출처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시립미술아카이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4부터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에서 추진되어 오다가 2022년 8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업무와 조직이 이관되었다.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산하 1개의 과로 총 13명의 인원이 소속되어 있다. 주요 기능은 〈표 2〉와 같이 수집, 연구, 전시, 배움, 자료관리, 정보화 등이 있다. 이 중 아카이브 업무 전담 인력은 2명이다. 전담인력은 자료 및 보존서고 관리, 아카이브 관련 지침·규정 수립, 시스템, 아카이브콘텐츠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2〉 시립미술아카이브 주요 기능과 사업

기능	목표	주요 사업	담당
수집	당대와 반응하는 확장된 영역의 아카이브 컬렉션	예술자료 수집기획·연구·실행 기관자료 수집기획·연구·실행 도서자료 수집기획·연구·실행	학예연구
연구	아트아카이브 기반의 연구와 비판적 지식 생산	자료해제 협력연구 현대미술포럼 대학연계 프로그램	학예연구
전시	아카이브 연구, 기록을 중심을 전개되는 시각화의 장	소장자료전 기획전	학예연구
배움	모두가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배움의 장	대상별(어린이, 청소년 성인) 교육프로그램	학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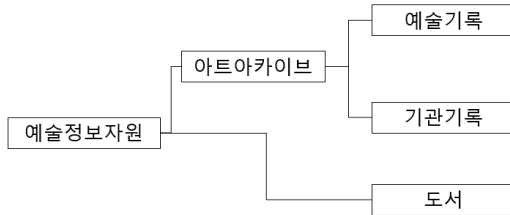
기능	목표	주요 사업	담당
자료 관리	안전하고 체계적인 아카이브 관리보존체계의 수립	매뉴얼, 지침, 규정 수립·운영 보존서고 운영·관리 등록, 분류, 디지털화 열람대여 및 열람실 운영	기록연구
정보화	누구나 접근·활용 할 수 있는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운영 아카이브콘텐츠 구축·운영	기록연구

※출처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2023년 운영계획(안)에서 재구성.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의 규모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개의 컬렉션, 46,000여 권을 수집하였다.¹³⁾ 수집대상은 195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미술 및 시각예술의 창작·매개 활동 자료이다. 특히 시립미술아카이브는 예술가, 창작자, 제작자, 연구자 등을 포괄하여 리드를 개발하였다. 이 중에서 본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의 활동과 소장 작품과의 연관성에 따라 수집대상 소장자(처)를 선정하였다.

소장자료는 크게 예술기록과 기관기록, 도서로 구분된다. 시각예술창·제작자와 매개자로부터 수집한 것을 예술기록이라고 명명하고, 서울시립미술관 및 분관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기관기록으로, 시립미술아카이브의 별도의 도서컬렉션을 도서로 지칭하고 있다. 이 3가지 자료의 유형을 통칭하여 예술정보자원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예술정보자원 중 예술기록과 기관기록은 아트아카이브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3〉 시립미술아카이브의 자료 유형



※출처 : 시립미술아카이브 등록메타데이터 작성 매뉴얼

13) 디지털미술아카이브에서 현재 공개된 자료는 전체 2,999건이다(2022.7.27. 확인).

시립미술아카이브의 디지털미술아카이브는¹⁴⁾ 2019년 개발하여 2020년 고도화를 거쳐 2021년 12월 사전공개 중에 있으며, 2023년 개관과 동시에 정식공개 예정이다.

〈표 3〉 정식공개 시 디지털미술아카이브 주요 메뉴(안)

대메뉴	컬렉션	검색	연구	아카이브+	프로그램
소메뉴	컬렉션 소개	자료검색	연구 프로그램	컬렉션 시각화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분류검색	연구가이드	타임라인	
		인물·단체·사건 검색	AA 출판	장소·위치	
		관련어 검색		아카이브 필사	

※출처 : 디지털미술아카이브(semaaa.seoul.go.kr)

〈표 3〉와 같이 주요 메뉴는 ‘컬렉션’, ‘검색’, ‘연구’, ‘아카이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뉴의 순서는 ‘컬렉션’부터 ‘프로그램’까지 날 것(데이터 구축)의 무엇으로부터 외연화되는 과정(콘텐츠화)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메뉴명과 기능은 순차적으로 아카이브 컬렉션의 이해와 그것을 검색 및 탐색(browsing)하는 도구, 아트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아카이브의 재맥락화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콘텐츠, 아카이브를 통한 시각화·촉각화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은 기본적인 ‘자료검색’, ‘분류검색’¹⁵⁾ 이외 ‘인물·단체·사건(전거레코드) 검색’과 ‘관련어(시소러스) 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의 검색(인물·단체·사건 검색과 관련어 검색)은 개별의 건과 연결되며,

14) <https://semaaa.seoul.go.kr/front/main.do>

15) 시립미술아카이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당시만(2017) 하더라도, 아카이브 분류 즉 계층(Hierarchy)에 따라 기록을 탐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미술계 내 많지 않았다.

연관된 서로 다른 전거레코드 및 시소러스와도 연계되어 있다. 아카이브와 그것의 생산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어휘통제를 통한 검색은 아카이브가 해야 할 필수적인 역할이자 기능이지만 앞선 사례기관의 디지털아카이브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미술계 내 그러한 노력은 많지 않다. 다시 말해 그간의 미술계 내 아카이브의 정보서비스는 작품의 정보서비스처럼 개별의 작품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카이브+’는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카이브+’는 ‘컬렉션시각화’, ‘타임라인’, ‘장소·위치’, ‘아카이브 필살’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3가지 메뉴(컬렉션시각화-타임라인-장소·위치)는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용의 도구이자 온라인 서비스의 방법론으로서 아카이브 간의 관계성(‘컬렉션시각화’)과 시공간축(‘타임라인’, ‘장소·위치’)에 아카이브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콘텐츠화 되어 있다. 특히 ‘컬렉션시각화’는 아카이브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의 관계성(컬렉션-아이템, 시소러스-아이템, 전거레코드-아이템 등)을 통해 아카이브의 (재)맥락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컬렉션시각화’는 시립미술아카이브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많은 데이터에 대해 그 데이터의 재조합과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아카이브의 재맥락화란 데이터 간의 재조합과 관계망을 통해 발견한 무엇,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으로 지칭할 수 있다면, ‘컬렉션시각화’는 그러한 아카이브의 재발견·재맥락화를 지향하고 있다.

2) 수집제도의 한계와 아카이브 설계

제도적 차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립미술아카이브는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조성’과 ‘운영’으로 구분하여 아카이브 체계와 제도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과정에서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즉 ‘조성’ 과정에서 시립미술 아카이브는 상위법인 『박물관미술관진흥법』(이하 박미법), 조례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수집조례)를 따라 수집·관리 되었다. 이후 업무 이관 후 ‘운영’과정에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관리운영조례)를 따라 추진되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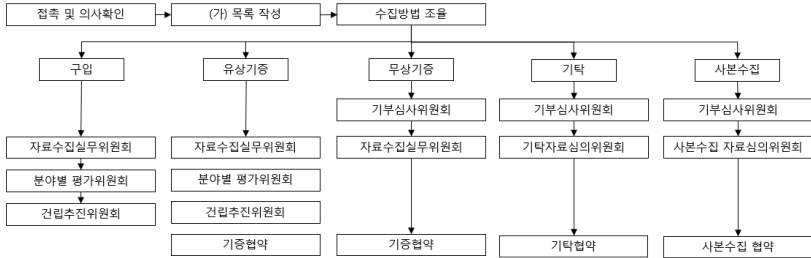
먼저 『박미법』에 따른 자료의 정의와 수집절차를 살펴보면, ‘박물관 자료란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사업 수행을 위한 증거물’을 말하며, ‘미술관자료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수집 절차와 관련된 위원회는 수증심의위원회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등이 있다.

결국 박미법 상 수집대상 자료는 유물·작품·아카이브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 의미에서 아카이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박미법은 ‘운영 중인 박물관과 미술관’에만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건립추진 중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집 절차와 관련된 제도는 『수집조례』이다.¹⁷⁾

16) 관리운영조례를 따르지 못한 것은 수집 당시(2017년) 해당 조례에 미술관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대상이 “소장품(작품)”으로만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026호, 2021.5.20.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7)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제3조(구입), 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에서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가 명시되어 있다.

〈그림 4〉 조성과정의 수집 방법별 절차



이러한 수집제도의 문제점 즉 건립추진 중인 부서가 수집할 수 없는 문제로 조성과정에서 『수집조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수집의 방법은 구입, 유·무상 기증, 기탁 등이다.¹⁸⁾ 그 방법에 따른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크게는 수집실사무위원회-분야별 평가위원회-건립추진위원회의 3단계로 구성된다. 수집실사무위원회는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등을 심의하고, 분야별 평가위원회는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등을 심의한다. 최종 심의는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다만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기증, 기탁 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¹⁹⁾에 의거한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협약을 진행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²⁰⁾

이러한 수집 관련 제도적 상황 속에 아트아카이브(예술기록)을 수집

18)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제3조(자료 구입), 제4조(자료 기증), 제5조(자료의 기탁 등)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20)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법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건립 추진 중의 부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5항).

하는 방법인 구입, 유·무상기증, 기탁은 그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은 구입이란 방법을 통해 유물과 소장작품을 수집하는 반면 아트아카이브(예술기록)의 구입은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²¹⁾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평가위원회는 수집대상의 자료에 대한 적정가격을 결정·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미술시장에서는 작품만큼 아카이브가 유통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소장자(처), 작가들을 연구한 연구자들, 미술시장·유통 관련 전문가 그룹도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조성단계에서는 ‘구입’이란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인 무상기증도 ‘건립 추진 중인 부서’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심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장부가액을 작성해야 하며, ‘운영 중인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증증서를 교부해야 할 때도 역시 자료의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가격평가(적정가격의 책정)는 모든 수집 방법에 적용된다.

한편으로 조성과정에서 시립미술아카이브는 『박미법』이나 『수집조례』에는 없는 사본수집이란 방법을 추가하여, 수집을 진행하였다. 아카이브 수집기관은 초기에 소장자(처)로부터 기증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일생을 모으고 생산하였던 아트아카이브(예술기록)를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관을 위해 선뜻 제공하는 작가(생산자)는 소수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립미술아카이브도 작가와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기 전까지 혹은 시립미술아카이브가 개관하기 전까지 기탁과 사본수집이라는 형태로 수증

21) 공공기록관리에서 아트아카이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는 『공공기록물법』 제46(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동법 시행령 제84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이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수립방법의 종류와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박미법』과 『수집조례』는 ‘구입’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립미술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여타 문화기관(미술관)에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만 있을 뿐 시행하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제도적 한계’이다.

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시립미술아카이브의 기록관리 체계는 이러한 개념적 범주와 제도적 제약 속에서 만들어졌다. 수집절차는 『박미법』이나 『수집조례』를 일부 적용할 수 있으나, 자료관리 등의 부분은 박물관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아트아카이브를 조성하는 기관은 유관 문화기관의 다양한 사례와 『공공기록물법』과 국가기록원에서 제시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우선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으로써 시립미술아카이브는 기록관리의 수집-등록-관리-보존-평가-서비스의 일련의 과정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개관준비 단계-개관 단계-안정화 단계로 구분하였고, 구축해야 할 매뉴얼·지침·규정을 대상군으로 설계하였다.

개관준비단계는 아트아카이브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매뉴얼을 설정해야 한다. 시립미술아카이브는 2017년부터 수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부 등록(AA_R)과 관리(AA_M)에 매뉴얼이 개관준비 단계로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지속적으로 진행된 수집과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추가·변경되었다. 개관 단계는 ‘조성’에서 ‘운영’단계로 변화함에 따라 변경된 수집 프로세스를 재정비가 필요하며, 대외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시기로 수집(AA_C), 서비스(AA-S)의 매뉴얼들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안정화 단계는 기초적인 관리보존 영역 이외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 구축할 수 있는 일부 등록(AA_R)과 평가(AA_A)가 포함된다.

〈표 4〉 아카이브 프로세스별 매뉴얼·지침·규정 대상군

구분	식별코드	단계별	매뉴얼·지침·규정
수집	AA_C	개관단계	① 예술기록 수집 매뉴얼
		개관단계	② 기관기록 수집 매뉴얼
		개관단계	③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예술기록 수집 및 관리 규정

구분	식별코드	단계별	매뉴얼·지침·규정
등록	AA_R	개관준비단계	① 등록메타데이터 작성 매뉴얼
		안정화단계	② 전거레코드 입력 매뉴얼
		안정화단계	③ 시소러스 입력 매뉴얼
관리	AA_M	개관준비단계	① 정리 매뉴얼
		개관준비단계	② 디지털화 매뉴얼
		개관준비단계	③ 분류·기술 매뉴얼
		개관준비단계	④ 관리 매뉴얼
보존	AA_P	개관준비단계	①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보존서고 관리 규정
평가	AA_A	안정화단계	① 평가선별 지침
서비스	AA_S	개관단계	①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공개 및 열람 규정
		개관단계	②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아카이브 대여 규정
시스템	AA_SYS	개관단계	① 관리시스템 매뉴얼
		개관단계	② 디지털미술아카이브 매뉴얼

위의 대상군을 절차별로 살펴보면 먼저 ‘수집’ 절차는 예술기록과 기관기록에 대한 수집 매뉴얼이 적용된다. 「예술기록 수집 매뉴얼」은 예술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로 준비-실행-완료에 따라 실무자들이 해야 할 역할과 방법이 작성되어 있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예술기록 수집 및 관리 규정」은 『관리운영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처럼 수집 대상과 중장기계획의 수립, 수집기준과 방법, 수집절차,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포함하여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등록’ 절차는 시립미술아카이브에서 운영 중인 관리시스템으로 아카이브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등록 메타데이터 작성 매뉴얼」부터, 디지털콘텐츠 사업을 통해 도출되었던 「전거레코드(인물·단체·사건)」, 「시소러스(관련어) 입력 매뉴얼」이 포함된다. 이 중 「등록메타데이터 작성 매뉴얼」은 현재 운영 중인 아트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의 등록메뉴에서 개별 건을 일관된 방법으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메타데이터는 ‘기본정보’, ‘생산정보’, ‘분류정보’, ‘형태정보’, ‘기술정보’, ‘추가정보’, ‘수집정보’, ‘저작권정보’, ‘첨부파일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 절차는 「정리 매뉴얼」, 「디지털화 매뉴얼」, 「분류·기술 매뉴

열], 「관리 매뉴얼」이 포함된다. 이 중 「정리 매뉴얼」은 아트아카이브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개별의 형태별로 보존용품을 적용하고 물리적 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화 매뉴얼」은 유형별 디지털화 기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다. 즉 자료의 유형별로 색상/비트심도/해상도/파일포맷의 기준과 디지털화 수행준비-수행-보정-검수-업로드 프로세스별 기준을 포함한다.

‘보존’ 절차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수장고 관리와 별도로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보존서고 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서울시립미술관 내 「서울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존 작품의 운용 내 수장고 관리·운영 부분은 간략히 표기되어 있다.²²⁾ 이에 시립미술아카이브의 「보존서고 관리 규정」은 인력의 통제(보존서고 출입), 자료의 통제(자료의 반출입), 공간의 통제(보존서고 시설·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 절차는 「평가·선별지침」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보존공간의 한계로 인해 수집된 모든 자료를 영구히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폐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평가와 타 기관으로의 관리전환을 포함한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술기록과 기관 기록의 형태분류 중 도서관행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²³⁾ 이에 시립미술아카이브는 정기적으로 그 자료의 중요도와 가치 등을 평가하여 아카이브에서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서비스’ 절차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공개 및 열람 규정」과 「서

22) 서울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규정(2013.7.17.) 제3장 작품의 관리 및 운영 제2절 보존작품의 운용 제27조(수장고 관리·운영) ①수장고 내에는 보존작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장고 열쇠는 작품출납 담당 공무원이 관리한다. ③ 수장고 운용의 정 책임자는 소장작품 관리담당 부서장이 되며, 부 책임자는 작품출납 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규정 제4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3) 시립미술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도서관행물은 54.87%를 차지한다.

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대여 규정」이 적용된다. 「공개 및 열람 규정」은 열람의 절차와 방법과 더불어 비공개 자료의 지정, 비공개 자료의 열람 및 리서치랩(열람실)의 이용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대여 규정」은 대여 가능 기관과 대여 가능 자료에 대해 정의하고 디지털 자료의 대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운영’ 절차는 각 시스템별로 관리자와 이용자를 위한 매뉴얼이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조성과정에서 시립미술아카이브는 개관 단계와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다양한 매뉴얼·규정을 작성하여 기록학적 체계가 구축되었다. 물론 대상군에서 제시된 모든 매뉴얼은 작성,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시립미술아카이브는 규정 및 매뉴얼들을 개관에 맞춰 점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카이브 체계가 이러한 매뉴얼들을 통해서 온전히 구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의 매뉴얼과 규정은 명확한 업무수행의 근거와 절차, 일관된 업무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설계되었다.

3) 조성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이러한 시립미술아카이브 구축과 조성의 특징을 찾아보면, 처음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단계별로 공간 구축과 콘텐츠 조성²⁴⁾을 함께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문화기관을 설립하는 과정은 건축이라는 공간적·물리적 제약이 설정된 이후 콘텐츠가 조성(전시 등 프로그램)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시립미술아카이브는 기존에 설립되었던 문화기관들과 달리 단계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4) 건축 부분은 평창동 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2014), 콘텐츠 조성은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가칭) 개관(콘텐츠) 조성 기본계획(안)(2017)을 기준으로 시작되었다.

〈그림 5〉 시립미술아카이브 개관전 조성단계



위의 그림은 조성단계에서 시립미술아카이브의 추진하였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차례 중요한 국면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건축(공간) - 콘텐츠가 처음으로 디자인되었던 시기(2017년)이다. 이 시기는 건축 설계 - 1차 수집 - 정보화전략계획(ISP)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각각의 영역(건축 - 미술사 - 기록학)에서 시립미술아카이브의 상을 그리고, 서로 다른 영역이 직조되며 합의점이 도출되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시립미술아카이브의 밑그림은 그려졌다. 두 번째는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디자인하였던 시기(2019년)이다. 브랜드개발 - 디지털미술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의 개발 및 디지털콘텐츠를 진행했던 시기로 시립미술아카이브가 어떤 통일된 시각적 언어를 통해 대외적으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각적 언어는 브랜드, 웹사이트, 사이니지, 실내공간 디자인 등에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컬렉션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대상 그룹을 다양화 시켰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즉 기존의 미술계는 작가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면, 시립미술아카이브는 이를 확장하여 기획자, 연구자, 전시공간(대안공간) 등을 수집대상 그룹으로 포함하고, 이를 '매개자 컬렉션'으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전시아카이브를 시범적으로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컬렉션 중 작가 컬렉션을 제외한 5개의 컬렉션이 수집되었다. 이런 시도는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외연 확장과 더불어 미술현장 속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들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특징 중 마지막은 아카이브 프로세스 자체를 아카이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원론적이나 아카이브 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수집과정을 기록화하는 것을 말한다. 시립미술아카이브는 잠재적 소장자(처)를 기준으로 수집활동 이력을 축적하고 있다. 이 이력은 접촉정보로 관리하고 있으며, 접촉정보는 접촉번호/접촉일자/접촉자/작성자/접촉방법/접촉장소/접촉내역 등이 있다. 1~4차에 걸쳐 수집을 진행하면서 (잠재적) 소장자(처)와 접촉했던 이력인 리드파일²⁵⁾은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조성 과정의 시사점은 사례분석 시 도출되었던 주요 업무(기능), 디지털아카이브, 아카이브 체계의 수립(규정 및 매뉴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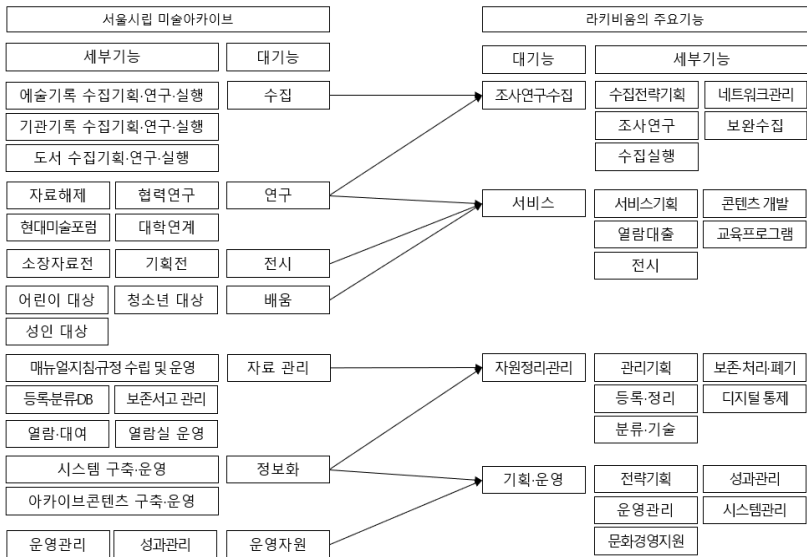
먼저 사례분석 대상기관과 달리 주요업무 기능적 측면에서, 시립미술아카이브는 라키비움의 실천공간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8년 윈젯(Windget)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수집기관으로 ‘라키비움(Larchiveum)’을 제안한 것이 처음이었다(최영실, 이해영, 2012). 이에 한국에서도 다양한 문화기관에서 라키비움을 설립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시립미술아카이브의 기능은 어느 문화기관보다 라키비움의 세부기능과 대차비교 해보면 <그림 6>²⁶⁾ 같이 유

25) 총 26개의 리드파일과 1개의 리드파일에 5개 내외의 접촉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6) 최영실, 이해영은 라키비움의 기능을 기획·운영(전략기획, 운영관리, 문화경영지원, 성과관리, 시스템관리), 조사연구·수집(수집전략기획, 조사연구, 수집실행,

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술 관련 문화기관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표 1〉) 독립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는 라키비움 기능(수집-연구-관리·보존-서비스(전시 등))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미술관으로서 시립미술아카이브의 서비스 기능(연구, 전시, 배움(교육) 등)은 라키비움의 주요 기능 중 서비스 기능보다 더욱 세분화 되어 있다.

〈그림 6〉 시립미술아카이브와 라키비움 주요기능 비교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아카이브 체계의 수립(규정과 매뉴얼 수립)과 관련하여 사례분석 대상기관보다 적극적으로 아카이브 체계를 절차

(교류)네트워크관리, 보완수집), 자원정리·관리(관리기획, 등록·정리, 분류·기술, 보존·처리·폐기, 디지털 통제), 서비스(서비스기획, 열람·대출, 전시, 콘텐츠 개발·교육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최영실, 이해영, 2012).

별·단계별로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시립미술아카이브는 기록관리의 프로세스별로 매뉴얼 및 규정의 수립 대상군을 설계하였고, 개관준비 단계, 개관 단계, 안정화 단계를 설정하여 매뉴얼과 규정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미술계 내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앞서 사례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립현대미술관은 「특수자료 포장 및 라벨링 지침」, 「분류, 정리, 기술 지침」, 「디지털화 지침」 등이 있으나, 공개되는 자료는 아니며 이러한 지침을 관리 및 운영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3장 1절에서 전개한 내용을 보았을 때, 시립미술아카이브는 디지털아카이브와 관련하여 사례분석 대상기관과 달리 아카이브의 출처와 생산맥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아카이브는 다양한 데이터 객체를 연계하여 재맥락화를 지향하고 있다.

시립미술아카이브의 출처와 생산맥락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거레코드와 시소러스이다. 전거레코드(인물·단체·사건 검색)와 시소러스(관련어 검색)는 관계된 개별 아이템과 연계되어 이용자들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아가 디지털아카이브의 모든 페이지에서 전거와 시소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는 하이라이팅(링크) 되어 있다.

다양한 데이터 객체를 연계한 재맥락화의 방법은 ‘컬렉션시각화’이다. 디지털아카이브는 시립미술아카이브가 소장 및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객체들의 연관관계를 ‘컬렉션시각화’에서 시각적으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정보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리고 연관되어 있을 것 같지 않던 정보들의 연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재맥락화의 장(場)을 만들어 준다.

4.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발전과제

시립미술아카이브가 조성되면서 직면하였던 문제점과 국내 미술아카이브가 발전하기 위한 과제들은 '지속가능성'으로 귀결된다. 이 장에서는 시립미술아카이브가 구축되면서 드러났던 한계들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점은 다른 아트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기관들에서도 참조할 지점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아트아카이브가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짚어본다.

1)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조성의 한계

첫 번째는 인력부족 및 조직구성의 문제이다. 시립미술아카이브의 사업 중 기록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크게 아카이브 정책의 수립과 운영, 자료관리와 정보화로 구분된다. 아카이브 정책의 수립과 운영은 ① 매뉴얼, 지침, 규정 수립 및 운영이 있고, 자료관리는 ② 보존서고 운영·관리 ③ 등록, 분류, 디지털화 ④ 열람대여 및 열람실 운영이 있으며, 정보화는 ⑤ 시스템 구축·운영, ⑥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운영이 있다.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전담인력은 2명뿐이다. 게다가 2명 중 1명은 업무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시립미술아카이브는 개관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시스템 및 아카이브콘텐츠 구축·운영 인력, △정책과 보존서고 운영 인력, △등록-분류-디지털화 및 열람-열람실 운영 인력이 각각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력과 조직구성의 문제점은 여타 아트아카이브 기관도 다르지 않다.

다음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기관기록의 부재이다. 현재 시립미술아카이브는 일부 기관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시립미술아카이브의 조성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이며, 서울시립미술관 전체의 기관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 서울시립미술관은 2015년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아카이브 장단기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하면서 일부

남겨진 자료에 대해 목록작성과 물리적으로 정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일부의 비엔날레 자료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체 기관기록으로 대변할 수 없으며, 그마저도 현재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²⁷⁾ 향후 시립미술아카이브는 서울시립미술관 본관과 분관을 포함하여 내부 업무에 맞춰 매뉴얼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²⁸⁾

세 번째로 아트아카이브 관련 조례·시행규칙의 신설 및 명확화가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서울시립미술관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은 소장품의 수집·관리·보존·서비스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자료 또는 아카이브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은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소장품’을 ‘소장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박미법』의 수정·변경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관리운영조례』의 전면적인 수정은 불가피하다. 먼저 누더기 같은 『관리운영조례』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미술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안)’을 구분하여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관리운영조례』의 2장, 3장은 시설의 관리운영 측면이기 때문에 존속하고, 4장의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 등은 아트아카이브를 포함하여 더 구체화시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아카이브의 수집-관리-보존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내 다른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서울역사박물관은 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²⁹⁾와 유물과 관련된 『수집조례』를 구분하여

27)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중기(2015-20)계획(안)(수집연구과-889, 2015.2.5.)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기관기록의 수집 및 관리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28) 시립미술아카이브는 기관기록에 관한 제도와 프로세스 정비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2023) 상반기에 마무리되어 이후 시범적으로 기관기록의 수집·이관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예규 차원이긴 하지만 아카이브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다.³⁰⁾ 특히 ACC의 「아카이브 관리 규정」 중 가격평가 방법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트아카이브는 다양한 이유로 그 적정가격의 산정이 어려운데, ACC 규정은 구입과 기증 시 예외조항³¹⁾을 두고 있어 적극적인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미술관 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안)』에는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는 미시적으로 시립미술아카이브와 거시적으로 국내 아트아카이브에서 아카이브 수집-관리-보존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2) 국내 아트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첫 번째로 문화예술 특히 시각예술 부문 아카이브의 정책과 표준이 부재하다. 다시 말해 국내 아트아카이브와 관련 국가차원에서의 정책과 표준들을 정립하고 전담해야 할 기구와 인력이 부재하다.³²⁾ 국가기록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의 아

29)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8087호, 2021.7.20., 일부개정)

30)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 관리 규정(예규 제226호, 2019.8.29.,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예규 제65호, 2022.3.15., 제정)

3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6조(구입) 제6항 구입 예상단가 점당 50만원 미만 또는 총액 500만원 미만인 자료와 공인기관과 관계기관 등의 추천 및 권장 수집자료는 외부가격평가 및 자료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및 자료의 가치와 가격의 적절성,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구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기증·수증) 제5항제2호 구입 예상단가 30만원 미만인 자료 또는 공인기관과 관계기관 등의 추천 및 권장 수집자료

32) 2007년 국립예술아카이브(가칭)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가 실행되었다(이호신, 2007). 그 연구에서는 국립예술아카이브의 운영체계, 기능, 공간, 조직, 재원조달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화 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내용들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르코예술기록원과 국립현대미술관이라 볼 수 있다. 아르코예술기록원은³³⁾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확산본부 산하 부서로 예술기록물 수집·보존·활용,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및 공연 영상화 사업, 예술기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확산 및 관리역량 향상지원, 예술자료를 디지털아카이빙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³⁴⁾ 책임운영기관으로 소관 업무를 운영규정에서 “미술작품과 미술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와 이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 교육을 통한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사무를 관장”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어떤 기관에서도 아트아카이브를 관장하는 정책의 수립과 제도와 표준을 관리하는 내용이 부재하다. 또한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어디에도 아트아카이브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결국 『문화예술진흥법』과 『박미법』 내 아트아카이브의 수집-관리-보존-활용의 근거조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³⁵⁾

두 번째로 아트아카이브 나아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다양한 문화기관은 수많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각자의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³⁶⁾ 그러나 그것

33) 아르코예술기록원의 명확한 설립 및 운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위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근거(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을 뿐이다.

34) 설립·운영근거 : 책임운영기관법(제14839호, 2017.7.26.) 및 동법 시행령(제32657호, 2022.5.31.)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예규 제258호, 2022.8.30.)

35) 윤소영(2021)은 법과 제도권 안에서 문화예술 아카이브 및 수집을 위한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 중 문화예술기록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조항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아르코예술기록원만의 예술기록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현재 국내 아트아카이브 수집과 관리는 대부분 미술관 운영사업 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미법』의 개정은 필수 불가결하다.

36) DA-Arts(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 <https://www.daarts.or.kr/> (2022.9.20. 확인)

무형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https://www.iha.go.kr/service/index.nihc> (2022.9.20. 확인)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 <https://portal.nrich.go.kr/kor/index.do> (2022.9.20. 확인)

의 메타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과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와같은 지원은 힘들지라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³⁷⁾ 다행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R&D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³⁸⁾, 한국문화기술연구소³⁹⁾, 한국콘텐츠진흥원⁴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관들의 주요 연구과제들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문화예술에 접목시킬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신기술의 적용 이전에 국가차원의 선결과제로 이미 산발적으로 생산되는 아트아카이브와 관련된 데이터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문화예술기관에서 대시민 서비스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핑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위의 R&D 기관이 문화예술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의 현행화 또는 연계 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현황을 확인하고 발전과제를 탐색하였다. 시립미술아카이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비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 <https://www.iha.go.kr/k-paan/> (2022.9.20. 확인)

국가문화유산포털 : <https://www.heritage.go.kr/main/?v=1664043349831> (2022.9.20. 확인)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 <https://www.bigdata-culture.kr/bigdata/user/main.do> (2022.9.20. 확인)

37)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2년에 제정한 문화예술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은 “시각예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한 정보 제공만이 가능하고 상세한 기술뿐만 아니라 엔터티 간의 관계 설정도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황진현, 2011, 53)

38) 설립·운영근거 : 문화기본법 제11(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및 동법 시행령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5호, 제2017-29호

39) 설립·운영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의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40) 설립·운영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교대상군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연구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경기문화재단의 백남준아트센터의 공간, 조직, 주요업무(기능), 소장자료 규모, 자료구분, 수집제도, 아카이브 체계(매뉴얼·지침), 디지털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시립미술아카이브의 조성과정에서 수집 제도의 한계와 아카이브 체계의 설계를 논의하였다. 특히 수집 제도는 현행 『박물관미술관진흥법』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건립 추진 중인 부서가 수집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주요한 수집 방법인 구입은 가격평가의 난점으로 시행할 수 없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립미술아카이브의 아카이브 체계는 기록관리 프로세스별(수집-등록-관리-보존-평가-서비스), 개관준비 단계-개관 단계-안정화 단계별로 총 11개의 매뉴얼, 1개의 지침, 4개의 규정으로 도출하였다.

시립미술아카이브의 조성과정에서 특징과 시사점은 ▲건축과 콘텐츠 구성을 동시에 단계별 진행 ▲수집대상 그룹의 다양화 ▲아카이브 프로세스의 아카이빙 ▲라키비움의 실천공간 ▲절차별·단계별 아카이브 체계 조성 ▲다양한 데이터 객체의 연계 통한 재맥락화까지 6가지로 정리하였다.

시립미술아카이브의 구축과정을 통해 본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과제로는 ▲인력충원 ▲기관기록의 부재 ▲조례·시행규칙의 신설 및 명확화 ▲국가차원의 아트아카이브 정책과 표준, 전담 기구의 부재 ▲문화예술 정보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조성과정을 살펴본 사례연구로써 도출된 과제가 이론적 논의 속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발전과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현행 수집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

적인 법률(안)과 조례(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 시점에서 국가차원의 아트아카이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시립미술아카이브는 2023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4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내외부적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도 많다. 이에 대한 기록 학계와 미술계에서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한편으로 시립미술아카이브가 양쪽 학계의 생산적인 담론의 장이 되길 기원해본다.

〈참고문헌〉

- 국립현대미술관 (2022). 2021 국립현대미술관 연보.
- 김경연 (2012). 아트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김기현 (2000).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학원.
- 김달진 (2012). 한국 미술아카이브의 분포 상황과 수집 여건과 과제 : 김달진미술 자료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241-284.
- 김달진 (2008). 국내 미술자료실 실태, 시각예술 분야 아카이브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자료집, 서울, 아르코미술관.
- 김민수 (2011). 미술아카이브의 기록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김민지 (2017). 미술 레지던시 기록 정보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대학원.
- 김아름 (2018). 미술관 전시 기록물 관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 과학전문대학원.
- 김인혜 (2012).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 아카이브 운영 구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301-310.
- 김철효 (2007). 시각예술 분야 자료 관리 현황,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포럼 자료집, 서울, 일석기념관.
- 류한승 (2012). 미술 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 사례연구 : 게티미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285-300.

- 박나라보라 (2019). 시각예술 분야 구술기록 기술요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17-247.
- 신나라 (2016).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한국적 모델개발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석사 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윤소영 (2021). 문화예술 아카이브 수집·보존·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화 방안. 국가문화예술 아카이브 현재와 미래 포럼 자료집, 서울, 국회 의원회관.
- 이세영 (2017). 미술관 내 아카이브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이지은 (2015). 미술관 소장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이호신 (2016). 공연예술기록의 정리와 기술에 관한 담론 : 출처중심주의와 원질서 유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151-174.
- 이호신 (2008).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 시각예술 분야 아카이브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자료집, 서울, 아르코미술관.
- 장지영 (2017). 미술작가의 기록 생산과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정공주 (2006). 아트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정공주, 박주석 (2014).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 기록학연구, 40, 61-93.
- 정혜린 (2008). 미술작품의 기록가치 구현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정혜린, 김익한 (2009).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0, 151-212.
- 최영실, 이해영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57-477.
- 황진현 (2011). 시각예술기록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령, 조례, 규정〉

-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8772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문화기본법. 법률 제18379호.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8769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법률 제18767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087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912호.
서울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규정. [규정번호 불분명]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 관리 규정. 국립현대미술관예규 제226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예규 제65호.

〈전자자원〉

국립현대미술관, <https://www.mmca.g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http://archive.acc.go.kr>
백남준아트센터, <https://njp.ggcf.kr>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https://semaaa.seoul.go.kr>
DA-Arts(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https://www.daarts.or.kr/>
무형유산 디지털아카이브, <https://www.iha.go.kr/service/index.nihc>
문화유산 연구자식포털, <https://portal.nrich.go.kr/kor/index.do>
박상애 (2014.11.19). '플랫폼' 과 '프랙티스'로서의 아트 아카이브.
출처 :https://www.theartro.kr/kor/features/features_view.asp?idx=1054&b_code=10e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https://www.iha.go.kr/k-paan/>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664043349831>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https://www.bigdata-culture.kr/bigdata/user/main.do>